

國家海洋개발 長期計劃수립에 큰 기대



許亨澤
〈海洋研究所長〉

유엔海洋法協約의 타결이래 新海洋秩序에의 대처와 해양자원개발에서의 우위확보를 위한 세계각국의 海洋力 강화움직임은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다.

이미 해양개발을 위한 政府主導機構를 설치, 강력한 개발시책을 펴나가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 프랑스, 영국, 중공, 인도등 많은 국가들이 그 조직체계를 더욱 강화, 재정비하고 있으며, 해양개발을 국가의 주요 기술개발목표로 설정, 그 중요도를 점차 높여가고 있음은 이같은 사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각국의 동향을 놓고 볼 때, 우리나라도 대륙붕과 領海에 대한 開發管理, 200해리경계수역 선포 및 자원개발, 深海底자원개발에의 진출 등을 위해서는 유엔해양법협약과 관련한 세계정세의 분석과 이에 대한 전략적 대응연구 및 각 분야별 기술개발연구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더우기 우리나라는 북극과 대치관계에

있으면서 소련과 중공등 공산국과도 인접해 있어 海洋境界劃定問題라든가 해상방위 등 군사전략면에서도 주변해역에 대한 과학적 조사연구 및 대비체계 확립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렇듯 해양개발에 대한 전반적 재조명과 각성이 필요한 시기에 다행히 85년 새해를 전후해서 國家海洋開發 장기계획의 수립과 정부주도의 효율적 해양개발체제정립에 대한 논의가 성숙되고 있어 기대를 갖게 한다.

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의 여건을 감안할때 국토의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을 뿐만이 아니라 풍부한 개발잠재력이 있음에도 해양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수립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었다.

따라서 해양개발법의 제정이나 해양개발심의회와 같은 정부기구의 설치, 해양자원개발에 대한 국가 장기계획의 수립 등은 해양개발의 활성화와 육성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국내 해양기술의 혁신적 발전과 기업의 해양개발활동을 크게 고무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해양은 미래적 자원보고로서 이의 개발은 앞으로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할 미래산업분야이다. 2000년대의 선진 복지국가의 건설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양개발을 위한 과감한 연구개발투자를 지금부터 하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현시점에서 우리나라의 해양기술수준을 가늠해 보면 자연채취형 어업이나 조선, 해운, 항만건설기술 등이 선진국수준에 올라 있으나 增養殖栽培漁業技術을 비롯해서 해양에너지와 광물자원의 개발기술, 해상플랜트등 대부분이 연구초기단계에 있거나 미래개발과제로 남겨져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추진해야 할 해양기술의 개발목표와 연구과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해양자원탐사기술개발

●목 표

沿近海 資源 및 海底 탐사능력의 深化, 遠隔 探查技術의 개발.

●연구과제

▲ 韓半島海域 종합해양탐사 및 자원파악 ▲ 원격탐사기술 ▲ 海中調査 및 潜水作業技術 ▲ 深海底 및 南極資源 탐사기술

◎ 해양생물자원개발

● 목 표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의 전환 및 魚類 식품가공의 다양화.

● 연구과제

▲ 高級魚種 인공재배기술 ▲ 인공진주 양식 기술 ▲ 魚貝類 가공기술.

◎ 해양광물자원개발

● 목 표

향후 陸上資源의 고갈에 대비 자원의 장기안정적 확보를 위한 해양광물자원의 개발.

● 연구과제

▲ 沿近海底 有用鑛物자원의 개발 ▲ 深海底 광물자원 개발 ▲ 海水溶存物 抽出技術

◎ 해양에너지자원 기술개발

● 목 표

脫石油정책을 위한 天惠의 無公害 대체에너지 자원 개발.

● 연구과제

▲ 40~70만KW 급 潮力發電所 건설 ▲ 波力에너지 이용 기술.

◎ 해양공간이용기술

● 목 표

국토 확장을 위한 해양공간자원의 개발 및 효율적 관리시스템 구축.

● 연구과제

▲ 우리나라 연안해역 종합개발 및 관리기술 ▲ 人工島·海上비행장, 해상공장, 海中공원 등의 건설 ▲ 연안간척, 항만 등 연안토목기술.

◎ 해양환경보전

● 목 표

해양의 자연생태계 유지 및 쾌적한 생활환경의 보전.

● 연구과제

▲ 해양汚染 모니터링시스템 개발 ▲ 해난방지구예보시스템 개발 ▲ 해양오염물질이동 및 防除技術

◎ 해양정책연구

● 목 표

新海洋法秩序의 형성과 관련한 국제동향 분석, 국가해양개발 정책수립 및 해양개발사업의 경제성 분석.

● 연구과제

▲ 한반도 주변해역 경제수역 설정을 위한 연구 ▲ 2000년대를 전망한 국가해양개발기본정책 수립 ▲ 해운육성 및 항만건설 최적화 방안.

◎ 해저석유자원개발

● 목 표

석유 및 천연가스 賦存可能 대륙붕 탐사 및 생산기술 개발.

● 연구과제

▲ 해저지질구조정밀탐사기술 ▲ 해저석유 생산시스템기술 ▲ 해저석유 채굴장비및기기개발.

해양기술의 개발은 이상과 같이 광범위한 분야의 요소기술이 종합되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복합시스템기술로서 우선 단기목표 달성이 유망하고 산업에의 파급효과가 큰 과제로부터 점차 장기대형과제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85년도에는 이상 과제중 고급어종과 인공진주 增養殖개발연구, 한국해역종합해양자원도작성연구, 연안해역 종합개발연구 등이 전년도의 계속사업으로서 중점 추진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그동안 국내 해양인들의 숙원사업이었던 綜合海洋調査船의 건조가 전년도에 총사업비 16,700,000불, 건조규모 750톤급으로 최종확정되어 금년도에 설계에 착수케 된다. 이 조사선이 완성, 운항하게 되면 해양탐사 및 연구개발이 광역, 본격화되며 최신탐사 및 해석장비의 확보로 해양조사작업능률의 획기적 향상을 가져오게 될 뿐만 아니라 국제해양공동탐사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해양연구소가 사상 처음으로 금년 10월 경 경기도 반월의 신축연구소청사로 이전하게 되며 머지 않은 장래에 전문연구기관으로 개편, 독립될 전망이어서 85년은 연구인력과 연구환경의 개선 등으로 해양기술 개발활동이 크게 활성화되는 "도약의 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